지식경제부	보도자료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4월 27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김정회 자동차조선과장, 최은신 사무관(2110-5658)		

자동차업계, 중소부품업체의 FTA활용역량 제고 노력

- 자동차부품 FTA활용설명회 개최 -

□ 지식경제부(장관:홍석우)는 4.26(목) 자동차산업협회, 자동차공업협동조합, FTA 무역종합지원센터와 공동으로 '자동차부품 FTA활용설명회'를 개최하였음

○ 이번 설명회에는 FTA활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원산지관리에 관한 업계의 실무 역량 제고를 위해 150여개사 250여명이 참석하였음

○ FTA대응역량이 다소 취약한 중소부품업체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, 2~3차 협력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였음

* 금번 참여기업 중 2차 이하 협력업체 비중 약 70%

〈「자동차부품 FTA활용설명회」 개요〉

○ 일시/장소 : '12. 4. 26(목) 14:00~17:00/ 트레이드센터 51층 대회의실
○ 참석 : 완성차업체 및 자동차부품업체 150여개사 250여명
○ 주요내용: 원산지증명절차 및 사후관리, 원산지판정사례 및 대응방안, 원산지관리시스템 활용방안 등 실무설명회
※ 설명회 종료후 희망업체에 대해 상담컨설팅 실시(FTA무역종합지원센터)

[자동차업계 전반의 FTA대응현황]

□ 정부와 업계는 자동차업종이 기체결 FTA 이행경험 및 대기업 중심의 공급구조*로 인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FTA활용 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

* 자동차부품은 완성차사 또는 1차협력업체를 통한 모듈형태의 수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, 공급사슬(supply chain) 중심의 시스템 구축과 활용이 필수적

○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2008년부터 원산지전담팀을 구성하여 자체적인 FTA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, 협력업체 대상으로 시스템 배포와 교육, 관리를 실시해 오고 있음

* 국내 완성차업체별로 FTA원산지관리검증시스템 개발완료
- 현대기아 ('11.7), 한국GM('11.11), 르노삼성('11.7), 쌍용('11.8)

○ 또한, 1차 부품업체들도 각 업체의 여건에 따라 ① 자체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(관세법인 활용), ② 모기업이 제공한 원산지증명 프로그램 활용, ③ 원산지관리 시스템(FTA Korea(KT NET), FTA Pass(관세청)) 활용 등을 통해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음

<참고> A사 1차협력업체 380개사의 FTA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현황

구분	업체수
자체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	90개사
모기업 제공 원산지증명 프로그램 활용	180개사
기타 원산지관리 시스템 활용(FTA Korea, FTA Pass)	110개사
계	380개사

※ 출처 : 한국자동차산업협회

[중소 자동차부품업체의 FTA 대응현황]

□ 정부와 업계가 FTA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체계 구축, 홍보 등을 추진해왔으나,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FTA활용역량은 아직 부족함

○ 직수출하지 않는 2~3차 협력업체*는 내부역량 한계**,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아직까지 FTA 대응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음

* 직수출하지 않는 제품은 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증명이 불필요하나, 1차 직수출업체의 최종 제품 원산지증명을 위해 2~3차 협력업체에서 생산되는 하위부품의 원산지관리 필수

** 원산지관리 전담인력 배치, 시스템 구축 및 외부 컨설팅 비용 부담 여력 부족 등

□ 자동차의 부품공급 및 수출 구조의 특성상, 완성차 및 대형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이들 중소부품업체의 원산지 관리에 노력하고 있음

○ 다만, 업계에서는 FTA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수준*에서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, 2~3차 협력업체의 원산지관리에 기술적인 애로사항이 크지 않다고 분석하고 있음

* 자동차부품업계에서는 별도의 시스템구축이 필요한 '부가가치기준' 대신, 투입 원자재 및 부분품의 정확한 품목분류(HS Code)만으로도 간단히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'세번변경기준'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부분

– 또한, 부가가치기준 30~55% 수준(국가, 계산법에 따라 상이)만 충족하면 역내산으로 인정받게 되므로, 모든 하위부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아님

〈 참고 〉 자동차부품의 한미, 한EU FTA 원산지 기준

○ 자동차부품의 원산지기준은 '세번변경기준' 또는 '부가가치기준' 중 선택가능

– (부가가치기준)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발생시킨 제조,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

– (세번변경기준) 제품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제품이 생산되면 해당 제조, 가공공정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방법

□ 따라서, 이들 2~3차 중소부품업체에 대해서는 FTA 원산지기준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, 대기업 및 1차 부품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개별기업 실정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는 상황임

〔향후 계획〕

□ 정부는 업종단체 및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2~3차 협력업체의 FTA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

○ FTA에 대한 중소부품업체의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금번 설명회와 같은 홍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며,

○ 아울러, 완성차 및 대형부품업체를 중심으로 중소협력업체의 FTA 활용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, FTA무역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원산지관리에 애로가 있는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한 1:1 방문 컨설팅을 병행하여 업체의 실무역량을 강화할 예정임

참고 | 자동차부품업계 FTA 활용설명회 개최 계획

□ 설명회 개요

○ 일　　시 : 2012. 4. 26(목) 14:00~17:00

○ 장　　소 : 삼성동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51층 대회의실

○ 주　　최 : 지식경제부, FTA무역종합지원센터,
자동차산업협회, 자동차공업협동조합

○ 목　　적 :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한 업계 관계자 교육

○ 참석대상 : 자동차부품업체 150여개사 250여명

□ 세부일정

시 간	주 제	발 표 자
13:30~14:00	o 등록	–
14:00~14:05	o 인사말	FTA무역종합지원센터 종합지원단장
14:05~15:00	o FTA 원산지증명 절차 및 사후 관리	이원희 관세행정관 <관세청>
15:00~16:00	o FTA 원산지 판정실무 및 사후검증	허상혁 관세사 <삼정 KPMG>
16:00~16:40	o FTA무역종합지원센터 활용방법 및 자동차부품업체 컨설팅 사례발표	이민선 관세사 <FTA무역종합지원센터>
16:40~17:00	o FTA Korea 및 FTA 원산지관리 서비스 소개	김병곤 차장 <KTNET uTH팀>

※ 설명회 종료후 희망업체에 한해 상담컨설팅 실시(FTA무역종합지원센터)